

토론문화의 언론사상사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공용배*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억압적인 유교규범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설명틀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토론문화 부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해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고대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그 인식론의 비교를 통해 해명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고대 중국을 포함한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에 동양에서는 진리를 탐구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키워드: 토론, 레토릭, 언론사상, 진리관, 암기식 교육

1. 문제제기

토론과 민주주의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토론의 활성화 여부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외적인 환경에

* kongyb@dankook.ac.kr

의해 좌우되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¹⁾ 또 다른 한편에서 토론의 활성화와 성숙 여부는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를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²⁾

우리 사회에서도 1987년의 민주화 이후, 토론의 활성화와 토론문화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심야토론>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은, 과거에는 허용될 수 없었던 다양한 시사적인 이슈의 성역없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자 선거 방송, 각종 비리에 대한 청문회 등은 다양한 이슈의 공론화와 함께 언론문화의 급속한 변화 가능성³⁾까지 예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한국방송협회, 1997, 616쪽).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토론의 공간을 한층 넓혀 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과연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얼마만큼,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온 것일까? 만약에 변화해 온 것이 없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고, 또 변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최정호(1982)는,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글 중심의 문화, 그리

- 1)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토론문화는 참여민주정이 도래하면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를 예증해 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최근에 관심있는 연구 테마로 부각되어 온 전자민주주의론과 사이버민주주의론, 그리고 속의민주주의론과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이론과 공론권 사상 등은 모두 토론의 활성화와 성숙을 전제 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 준다. 특히 속의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박승관(2000) 참조
- 3) 여기서 말하는 언론문화의 변동이란 글 중심적인 문화에서 말·글 병용의 문화로의 변화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글 중심의 송문주의 언론문화에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한 계기를 근대적인 대중매체의 도입 시기에서부터 찾는 견해도 있다. 최정호(1982)는, 말과 글이 하나가 되게 한 『독립신문』의 창간이 그 첫 번째 사건이며, 1960년대에 들어서서 말의 문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매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계기였으며, 이로써 글의 문화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말의 문화가 해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고 말의 반(反)문화 또는 말 부재(不在)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토론문화는 기본적으로 말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서 최근의 진단과 논의들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토론문화가 부재하다는 평가가 그것이다.⁴⁾

이러한 진단과 지적은 비단 저널리즘을 통해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⁵⁾를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토론의 능력 뿐만 아니라 토론에 임하는 자세 등 토론문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거나, 발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체제와 같은 정치적 환경, 그리고 조선조 사회를 지배해 온 신분 및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인 행위규범과 같은 요인들이 토론문화 부재 또는 미발달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가정해 왔다. 말하자면 이들 요인들이 토론문화의 생성과 발달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요인들은 토론행위의

4) 한 예로 『미디어 오늘』은, “기자들 ‘토론문화 활성화하자’ 제하의 기사(1998. 11. 11, 169호, 7면)에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보도 태도와 관련해서 언론사 노조의 문제제기를 소개하면서 기자 사회에서도 토론문화 활성화의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귀 막고 제 목청만 ... ‘토론문화’가 없다” 제하의 기획기사(2001. 5. 16, 9면)에서 “우리사회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토론문화 부재의 사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기사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인터넷은 ‘말의 쓰레기장’ ” 제하의 기사(2001. 7. 18)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와 있는 글들을 보면 ... 논리적 토론은 찾기 어렵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비방과 인신 공격으로 온통 도배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5) 대표적으로 허경호·강태완(1999)의 연구와 윤영철(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인 구성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이들 요인은 토론행위 자체를 억제하거나 저해하는 외적인 환경 요인일 수는 있어도 토론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⁶⁾ 토론을 억제하는 외적 요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곧바로 토론문화 생성 및 발달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현 한국사회의 토론문화에 대한 진단이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⁷⁾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토론문화 부재의 원인과 그 배경을,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전통사회에서의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에서 찾아보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문화 발달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 배경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실천적 관심도 작용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토론의 상관성이 입증된 이상, 토론문화의 발달과 정착이 시급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6) 이와 유사한 맥락의 문제는, 전자민주주의와 공론권 그리고 전자민주주의와 속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의 등장과 매체환경의 조성이 곧바로 공론권의 형성 및 발달, 그리고 속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가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낙관론적인 시각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할 현상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 함몰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7)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또 다른 요인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주의 역사의 일천함이라든지, 또는 토론문화 형성의 구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개선된 지 불과 20여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토론문화의 실현과 성숙을 기대하기란 물역사적인 인식이라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물음이 그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논의의 방향

1) 기존 연구의 검토

문헌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명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반면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는 연구는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와 유사하게 유가(儒家)의 사상서를 통해 전통사회의 커뮤니케이션관과 특징을 살핀 연구들이다.

두번째는,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문화를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또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과 문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한국사회의 토론문화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의 연구로는 토론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로서 대부분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토론문화와 그 현단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유익한 경험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연구로서, 먼저 올리버의 연구(Oliver, 1971)를 들 수 있다. 올리버는, 서양에서는 레토릭의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설득보다는 교화에 있었다고 분석한다. 동양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교화에 있다고 한 점은 토론문화 부재를 해명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연구로는 이규완의 연구(1991)가 있다. 『맹자』(孟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말의 목적은, 설득보다는 교화(教化)언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동·서양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유가의 고전 분석을 통해 동양의 커뮤니케이션 인식체계를 분석한 박재환의 연구(197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역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인 문화권에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토론행위가 활성화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었다고

하겠다.

한편 최정호(1982, 1986)는 동서양 언론문화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 서양에서는 말과 글이 공존, 병존해 왔다면 동양에서는 승문주의가 지배한 결과, 전통적으로 말보다는 글 중심의 언론문화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말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어관이 지배해 왔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언어관이 지배해 온 이상, 토론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범수(1983)는 유가사상이 담겨 있는 고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양 유교문화권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그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설명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머무른 경향이 있었으며 동·서양 어느 한 편의 가치관과 이론적 틀에 준거해서 동서양을 비교하려 한 점이 엿보이고 있어 반론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유형의 연구로는, 김현주의 연구(1993)와 임태섭의 연구(1993)가 대표적이며, 이들 연구는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행위에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한국사회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뤄지는 토론을 위축시키는 요소로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김세은의 연구(2001)는 토론문제를 직접 논의한 연구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토론을 바탕으로 한 공론권의 형성 가능성을 저해한 요인은 유교의 행위규범과 유교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언어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이 보편적 인간이성, 즉 비판적 이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허경호·강태완(1999)은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참가한 토론 패널 참가자들의 토론행위를 사례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사실적 자료에 입각한 주장보다는 근거없는 단언을 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과 심도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토론능력 측면에서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윤영철(1998)은 PC통신의 게시판 토론과 그 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토론참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신뢰나 존경심을 표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힘들었으며, 논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발언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념에 기초하여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서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관과 행태상의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도출해 내려 한 나머지 토론문화 부재의 원인 해명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천착에는 이르지 않고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동·서양 언론사상과 그 특징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 결과 토론문화 부재 현상을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

2) 논의의 방향

토론활동과 토론문화에는 적어도 두 가지 부류의 영향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토론행위에 미치는 외적 요인이다. 이들 요인은 토론행위의 활성화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요소들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내적 요인이라든 토론의 필요성, 효용성과 관련된 인식론적 기반을 말한다. 내적 요인은 토론능력 및 토론문화의 성숙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⁸⁾

토론문화를 좌우하는 내적 구성 요소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한, 토론행위를 억제하는 외적인 요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토론의 활성화와 성숙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 내적 구성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토론을 억제하는 외적 구성 요소의 작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토론을 억제하는 외적인 영향 요인이 제거되는 순간, 잠복해 있던 내적 구성요소가 활성화되면서 토론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가정해 볼

8) 토론의 방법 등을 포함한, 토론문화의 내적 구성 요소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 참조(이삼열, 1992; Myerson, 1994).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토론문화 부재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토론문화가 오래 전부터 형성 발전되어 왔다면, 그에 상응해서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 역시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며, 반대로 토론문화가 전통사회에서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을 역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사회에서부터 이미 토론문화가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양의 언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대 그리스시대의 언론사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에서 토론문화가 일찍부터 형성, 발전되어 왔다면 그에 상응해서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도 형성, 발전해 왔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에 한국 사회와 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원시 유가사상에서 언론사상과 관련된 부분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전통적인 언론사상속에서 토론문화 부재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이긴 하나 동·서양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 부재의 인식론적인 기반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고대 그리스시대의 언론사상과 토론문화

1) 말(logos)의 용도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토론문화를 포함한 서양의 언론문화와 그 전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서양의 언론(토론)사상의 원류가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며 둘째, 그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논의한 상당수의 사상가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의 언론사상은 대부분 고대 그리스시대의 사상에서 사실상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⁹⁾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상가들의 언론사상과 그 단면을 플라톤의 대화편인 『고르기아스』(Gorgias)와 『파이드루스』(Phaedrus)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두 저서에는 당시에 이미 말(레토릭)의 용도를 둘러싸고 사상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소개되어 있다.¹⁰⁾

당시 아테네에서는 참여민주정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 참주정 시대에 땅을 몰수당했던 시민들이 토지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법정에서 말 잘하는 기

9)비근한 예로 서양의 언론사상과 문화적 전통에서 레토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이처럼 레토릭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막대한 것이었기에 롤랑 바르뜨는, 레토릭의 영향력을 일컬어 ‘레토릭 제국(帝國)’에 비유한 바 있다. 이것은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제국보다도 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제국보다도 광활한 지역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을 비유한 것이다 (김 현, 1985, 21-22쪽).

10) 『고르기아스』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논쟁이 실제로 있었는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대립되는 두 입장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대립되는 사상과 양론이 존재해 왔다는 점은 서양의 지성사를 포함해서 언론사상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알츨(Altschull, 1990/1993)도 서양 사상의 전개과정은 흡사 시계추가 좌우로 진동하듯이 이원론 사이에서 변화와 이동을 계속해 왔음을 논의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시대와 그 이후의 레토릭을 둘러싼 논쟁도 이러한 이원적 대립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Poulakos, 1993, pp. 1-10). 최정호(1989, 15-23쪽)도 서양사상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원적 대립의 사례로서 성(聖)과 속(俗)의 대립,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대립,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대립,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대립을 소개한 바 있다. 논쟁과 토론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개의 이념과 사상간의 대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사상사는 그 자체 논쟁과 토론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술, 즉 레토릭¹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Murphy, 1983, pp. 6-7).

레토릭은, 이처럼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레토릭을 구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구사하는 레토릭이 그럴 듯해 보이는 논리, 사실입직한 것들을 늘어 놓는 것이라면 화자(話者)의 윤리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소크라테스와, 그 당시 또 하나의 유명한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Gorgias) 사이에서 논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¹²⁾ 『고르기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간의 문답 또는 논박의 주요 내용에서 그 골자를 중심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기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고르기아스는 레토릭은 말(logos)에 관한 기술(449d)이며, 인간과 관련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451e)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레토릭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또는 권력)을 준다(452d)는 점에서 그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설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결과, 얻는 것이 참된 지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념인가라고

11) 레토릭은 우리말로로는 대부분의 경우 수사학으로 번역되고 있고, 일부에서 변론술, 논변술, 또는 설득술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레토릭의 전통이 그 쓰임새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전통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후대에 와서 까지도 이 세가지 전통이 시대적, 정치적 환경을 달리하면서 부침을 해 온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 세 전통이란 법정 변론술의 전통, 그리고 논증을 통한 설득을 중시하는 철학적 전통, 그리고 수식과 문채를 중요시하는 문학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을 통해 이러한 세가지 전통을 조화롭게 결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boul, 1989/1999, pp. 15-28).

12) 고르기아스를 포함해서 소피스트들의 레토릭이 안고 있었던 윤리적인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준웅(2001)의 논문 참조

되묻는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레토릭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설득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455a), 또한 레토릭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문가보다 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설득의 요령만을 발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459c).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레토릭이 정의보다는 불의를 위해서 그리고 선(善)이 아니라 악(惡)을 위해서 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플라톤의 후기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드루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두 종류의 레토릭이 있다면서 그것을 비교한다. 하나는 소피스트들의 레토릭으로서 이는 설득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상대방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일에만 목적을 둔 기교적인 문장술(logography)로 구성되는 레토릭이라면, 다른 하나는 진정한 레토릭으로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철학적인 레토릭, 즉 다이아렉틱(dialectic)이 그것이라고 말한다(260e, 261a).

소크라테스는 말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무지를 깨달으며, 나아가서는 진리를 탐구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문답법 내지는 산파술로도 불려진 변증술은 묻고 대답하고 또 되묻는 과정, 즉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아렉틱(dialectic)이 이후에 논리학의 모태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서양의 언어관은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대화와 토론과 직접 관련된 사상으로서 출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저서가 모두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고대 그리스시대의 사상적 배경과 그 문화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말의 용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두 입장 모두 말의 용도와 그 쓰임새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폴리스

의 공공생활에서는 레토릭과 다이아렉틱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민회와 법정, 그리고 연설과 웅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레토릭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학문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에서는 다이아렉틱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레토릭이 연설과 웅변의 용도로서만 소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토론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설득력있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도 레토릭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레토릭과 다이아렉틱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 레토릭이라는 하나의 이론분야로 발전시킨 인물과 저작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레토릭』이었다. 『레토릭』의 첫 문장은, “레토릭은 다이아렉틱의 짝(antistrophos, counterpart)”이라는 개념 정의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 폄하되었던 레토릭의 역할과 그 지위를 상향 이동시켜 놓는 정의였다. 다시 말해서 레토릭은 그 쓰임새와 실용적인 가치가 폭넓고 크다는 점에서 다이아렉틱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소피스트들의 레토릭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오용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화자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에토스를 강조하였으며(조맹기, 2001, 46-47쪽),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이 아니라 이성애 소구하는 논리적인 설득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였던 것이다.¹³⁾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의 목적을 논리적 설득에 둬으로써 레토릭이 이성적 사고와 이성적 논증을 요하는 다이아렉틱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대화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던 것이다.

2) 진리관과 토론문화

앞서 살펴본, 레토릭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말의 용도를 둘러싼 토론이요

1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상철(2000, 174-176쪽) 참조

논쟁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역사에서는 일찍부터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더구나 다이아렉틱은 그 자체 대화와 토론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서양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인식론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달리 보면 진리에 대해 열린 태도와 함께 진리 여부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계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진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말이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이 갖는 기능 중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레토릭은 진리와 정의를 밝혀 주고, 허위와 부정이 이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진리와 정의가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1355a).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진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 소피스트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은 없거나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정할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남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모아지게 될 것이다. 소피스트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지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Störig, 1970/1976, pp. 182-183).

그런데 절대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은 곧 진리의 상대성, 진리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피스트들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극단적으로는 진리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이것을 상대방이 받아 들이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¹⁴⁾ 여기서 레토릭은 소용되고 있

14) 소피스트들의 레토릭은, 한가지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양쪽 상반된 입장 모두를 지지하는 설득을 펼칠 수 있다는, 이른바 양방논증(dissoi logoi)을 즐겨 했던

었던 것이다. 이처럼 레토릭은 또 다른 인식론적 기반위에서 토론사상과 토론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4. 유가사상에서의 언어(말)관과 토론문화

1) 말(言)의 목적과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

말은 생각과 의견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며 동시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말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맺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러한 전제는 문화적인 전통을 넘어 서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의 쓰임새나 용도, 즉 말하기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가의 언론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논어』를 분석한 결과, 말의 목적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말의 방법과 태도에 관련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孟子)에 서는 말을 하는 이유와 그 용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이 도(道)를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워주려 한다. 내가 일깨워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萬章章句上).” 맹자의 이 말도 달리 해석하면 말의 목적과 용도를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는 목적을 명쾌하게 밝힌 대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사상가들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말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타고라스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그 어느 쪽에서도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들의 인식론적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준웅, 2001, 362쪽).

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을 모르면 남을 알 수 없다(『論語』堯曰篇)”고 언급한 부분과 “듣기 좋은 말이나 보기 좋게 얼굴을 꾸민 자에게는 인(仁)이 적으니라(『論語』學而篇)”고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렇다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는 이상적인 인물상으로서 군자를 제시하고, 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는 소인을 제시하곤 하였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論語』子路篇, 里仁篇)” “말을 신중하게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었다(『論語』公冶長篇, 子路篇, 憲問篇, 衛靈公篇, 季氏篇).

그렇다면 이상적인 인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자가 이처럼 말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유가사상에서는 말 많음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말에 비해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¹⁶⁾ 이를테면 유교에서의 주요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충(忠)과 효(孝)를 늘 강조하는 사람이 그에 걸맞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말 많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말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인식은 왜 이처럼 서양과는 사뭇 다른 사상과 문화적 전통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원시 유가사상의 체계와 그 인식론적인 기반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를 포함해서 유가사상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仁)의 실현이었다.¹⁷⁾ 그래서 인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하고 있었다. 유

15) 비슷한 맥락에서 맹자도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의 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孟子』公孫丑章句上).

16) 맹자도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자한 말보다는 인자하다는 평판이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 드는 것이 좋다”(『孟子』盡心章句上)

17) 원시 유가사상의 핵심사상으로 논의되어 온 인(仁)이나 예(禮) 외에도 정명(正名)을 중심 사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박희식(2000) 참조

가사상에서 말하는 인이란 곧 질서와 덕이 있는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 때의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효와 충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봉건사회에서 자손 대대로 가정과 집안을 이어가고 논밭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상하신분과 서열에 따른 인간관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질서를 중요시했을 것이다. 이것이 유가사상의 환경적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란 동서양 문화권을 넘어서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보편적 수단이긴 하지만 유가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진리관과 언론문화

유가사상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 유가사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진리 즉 인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보다는 실천에 옮기는 일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 많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자는 “글공부에 있어서야 어찌 남만 못하겠느냐? 그러나 군자답게 실천하는 경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論語』述而篇). 그리고 공자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의 공부하는 모습에 대해 평하기를 “내가 안회와 종일토록 이야기해도 한 마디도 물어보는 일이 없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나 나중에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나의 말을 충분히 행동으로 실천하더라. 안회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論語』爲政篇).

또한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배움(學)의 대상 역시 인이었고, 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구현하는 일을 마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배운다는 말의 뜻은 경전 속에 담겨 있는 선현의 가르침을 읽고 깨닫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스승은 강론하는 일 못지 않게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었다(『論語』述而篇, 子罕篇).

이처럼 유가사상에서의 진리는, 열려져 있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경전 속에 들어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는 실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공자는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갖거나 논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공자가 “이단을 배우면 해로울 따름이다”라고 한 것이나(『論語』爲政篇), “실천해야 할 도(道)가 다르면 서로 어울려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 대목은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論語』衛靈公篇).

또 다른 한편에서 “예(禮)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듣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論語』顏淵篇)고 한 대목에 이르면 진리에 대한 태도는 더욱 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¹⁸⁾

서양의 사상사에서 사유한다는 말의 뜻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사유는 이성에 의한 비판적 사고를 말하며, 그것은 곧 토론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생각한다’(思)라는 말의 뜻은, 배운 바를 제 것으로 소화해서 실천했는지의 여부를 반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¹⁹⁾. 진리가 실천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가사상에서의 진리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옛어른 또는 성현의 말씀을 곧 진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옛 어른의 말씀은 바로 글과 책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문자와 글을 신성시하고 숭상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18) 『荀子』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뜻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것은 귀로 듣지 말며, 그런 것은 입으로 말하지 말며, 그런 것은 마음에 생각지 말라”(勸學篇).

19)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대목을 『論語』子罕篇, 雍也篇, 學而篇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문을 하고, 벼슬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곧 독서하는 것이었다. 과거 사대부를 독서계급으로 칭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論語』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공자의 모습은, 제자들과의 강론이나 대화 보다는 제자들이 글을 읽고 실천하는가의 여부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벌이는 대화 또는 토론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묘사되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에서 보면 토론한다는 것은 곧 의견의 교환이면서 동시에 논증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 사유이면서 또한 비판적인 사유이기도 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상대주의 진리관이 당연시되는 사회와 문화에서 비판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토론은 그 자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Myerson, 1994).

따라서 비판한다는 것은 토론하는 것이지만, 토론한다는 것은 보다 옳고 타당한 것을 찾고, 확인하려는 탐구행위가 된다. 그래서 토론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생각과 가치를 도출해 내려는 작업에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낸다는 것도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가사상에서는 서양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비판적 사유를 권장하지도 않았지만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에서 그와 같은 비판적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유가사상에서의 간(諫)사상을 서양에서의 언론비판사상에 견주어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 신하가 간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비판사상과 유사하지만 엄격한 상하신분의 유교적인 규범체계하에서 비판행위는 한계를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간사상은 왕도정치이념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금으로서 마땅히 위정의 규범으로 삼아야 할 법도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도를 벗어날 때 신하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간하는 것을 신하의 도리로 간주하고 있었다. 유가사상의 간사상, 즉 비판사상은 이미 정해진 왕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 고쳐 잡기 위한 비판이었다(김영주, 1991, 144쪽). 따라서 이 때의 비판은, 서양에서 말하는 인간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성을 모색하는 비판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유가사상에서의 위민(爲民)사상을 민주사상으로 오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민정치사상에서는 위민이라는 말 자체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뜻이므로 치자와 피치자의 엄격한 구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사상이란 곧 백성이 주인이 되고,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상이기에 그 뜻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가사상에서는 토론을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론적 기반, 즉 토론사상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²⁰⁾ 따라서 유가사상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토론과 관련된 인식론적인 기반의 미형성이 토론문화의 부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진리관의 차이와 그 언론문화사적인 함의

지금까지 서양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원적

20)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같은 유교문화권의 사회이면서도 사정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고대 시기에 제자백가가 출현하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서로 겨루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토론사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백가의 출현과 그에 따른 사상의 다양성이 과연 서양에서의 사상의 다양성 개념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유교문화권의 한·중·일 삼국의 토론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 진리관, 즉 커뮤니케이션의 인식론적인 기반이 시기적으로 선행하거나 동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서양의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토론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의견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거나 당연시하는 인식론적 기반이었다.²¹⁾ 이러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토론문화의 내적 구성 요소들이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식론적인 기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동·서양 언론사상의 차이점은 그 밖의 언론사상 및 언론문화 현상, 그리고 후대의 언론사상과 언론문화의 전개와 그 특징을 설명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보기로 들 수 있는 것이 관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언론사상사 및 언론문화사에서는 사상적, 종교적인 관용론이 중요한 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관용론이란 대립되는 의견과 사상이 존재하고, 충돌할 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21) 서양의 진리관을 다원론적 진리관으로, 그리고 유가사상에서의 진리관을 일원적인 단원론으로 단순화시켜 구분하는 일은 사실상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문제점이 있음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진리관과 그 생태학적 환경을 따져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은 유목민족의 후예로서 정복과 지배의 역사를 거듭해 왔으며 정복과 지배가 목적인 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찾고 탐구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라도 정복과 지배의 방법을 찾으려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의 좌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농경민족으로서 논과 밭을 터전으로 살아 왔기에 논과 밭을 물려 준 조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조상과 어른의 경험과 노하우가 진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논밭 일을 하기에 근력을 갖춘 남성과 남아가 여성과 여아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동양은 자연에 순응하고 친화하려 했지만 서양은 자연을 정복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동양에서는 달을 보면서 시를 읊었지만 서양에서는 로켓트를 쏘아 올려 달을 정복하려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은 동서양의 차이점을 단순히 비교해 보려는 데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동서양이 교류를 통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과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을 감안하면 관용의 정신은 토론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용의 정신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인식론적인 기반이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²²⁾ 이와 비교해서 토론사상과 토론문화가 부재했던 한국사회에서 과연 관용론이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양의 근대사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외친 이념과 투쟁의 역사²³⁾ 또한 고대 그리스시대의 토론사상과 토론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이념과 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란 곧 의견 표현의 기회와 의견의 다원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이념과 투쟁이 있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과 개진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양의 언론사상사는 일러 주고 있는 셈이다.²⁴⁾

서양에서는 공정경쟁 개념도 이와 같은 사상과 의견의 공개 시장 개념을 기초로 발전해 왔을 것으로 추론해볼게 된다. 하나의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의견들이 논증에 의존하지 않고 힘과 완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그 곳에서

22)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관용의 철학적 바탕이 되어 왔음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로는, 황경식(1992) 참조.

23)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진리와 허위가 싸우게 하라”로 개진되는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의 원리(Milton, 1998)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서 그 원형 내지는 편린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유주의 언론사상의 원류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4) 서양의 경우, 다양한 의견과 주장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곧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환경적 조건이 되어 왔다면, 우리의 경우, 근대 이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해 보게 된다. 개진하고 주장해야 할 의견과 주장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억압과 통제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에 저항하여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는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사상과 의견의 시장 또한 형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토론문화 부재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는 일단 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 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서양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원시 유교사상의 인식론적 기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방식이 일조해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교사상에서는 진리가 책 속에 담겨 있었기에 그것을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천할 것을 주지시켜 왔다. 옛 경전을 읽고 외워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 공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사회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오늘날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제도의 골격을 형성한 것으로 추론된다. 지난 역사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이 사회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전통사회의 인식론적인 바탕이 지배하는 문화 지체 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현장과 제도는 중요한 사회화의 기구이면서 동시에 문화규범을 전승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는 말과 글을 배우고 전달하는 언론현장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는 고대의 레토릭이 후대에 까지 이어져 내려 오면서 토론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레토릭과 함께 논리학을 오래 전부터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해 왔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⁵⁾

다원적인 진리관이 지배하는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동등한 지위의 토론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며, 교사이든 학생이든 모두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진리관과 역할관이 이처럼 형성되어 있다면, 교육현장에서도

25) 이와 관련해서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교육철학과 웅변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오인탁(1993) 참조

토론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그에 비해 일원적 진리관이 지배하면서, 진리가 경전 속에 담겨 있는 상황에서 교육은 경전속의 진리를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교사는 확인하려 할 것이다. 경전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말하자면 정답이 된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는 묻고 대답하고, 되묻는 일이 일어나기 보다는 외워서 실행에 옮기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지배적일 것이다. 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은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지 않고 비판적 사고가 권장되지 않는 한, 진리에 대한 맹신과 맹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비례해서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 사고를 키워나갈 기회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정답이 분명한 사회, 그리고 다른 생각과 의견이 끼어 들 틈이 없는 사회에서 토론은 불필요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 결론과 제언

동·서양의 언론사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사회에 서부터 토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동양의 유가사상에서는 상대적으로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토론사상, 그리고 토론문화가 거의 동행해왔다면, 유교사상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던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가고는 있지만 토론사상과 토론문화는 여전히 미형성 내지는 미발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은 조성되고 있지만 토론사상과 그 인식론적인 기반 내지 토론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토론문화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외적 조건의 구비만으로 형성되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버 네트워크가 발전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견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다원론적 언론사상과 그 인식론적 바탕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일러 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라면, 그리고 토론문화의 성숙과 발전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이제 토론문화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토론문화 부문에 대한 개선 작업과 정책적 역량의 결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사회에서부터 레토릭을 포함한 논리학 등 토론사상, 토론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논술과목 등의 편입을 통해 설득력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서서히 인식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묻는 논술시험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암기식 교육방식의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론문화의 진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조금씩 마련되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전체 체계에서 보면 여전히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개진할 수 있는 화술 교육을 하루 빨리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과과정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열린 사고와 함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권장과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개혁

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전에 이러한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 본 언론사상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현 (편). (1985). 『수사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세은 (2001). 유교문화와 공론권. 『언론과 사회』, 9권 4호, 96~129.
- 김영주 (1991). 조선조 언론사상에 관한 시론. 『언론 사회 문화』(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창간호, 143~171.
- 김현주 (1993). 한국인의 연출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I - 한국인과 커뮤니케이션』(1-30쪽).
- 박세환 · 허경호 (2001). 토론능력의 구성개념 및 척도의 타당성 연구 : 대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1호, 147~193.
- 박승관 (2000). 속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제45-1호, 162~194.
- 박재환 (1975). 원시유가의 커뮤니케이션관 - 특히 <논어>와 <맹자>를 중심으로.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제12집, 119~139.
- 박중현 (1982). 『희랍사상의 이해』. 서울: 종로서적.
- 박허식 (2000).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본 원시유가의 정명사상에 관한 기축론적 연구: 공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4-2호, 124~149.
- 오인탁 (1993).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적 도야 이론. 『教育學研究』, 31-5호, 1~31.
- 윤영철 (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국언론학보』, 제43-1호, 184~218.
- 윤오영 (역주). (1978). 『新譯 荀子』. 서울: 현암사.
- 이규완 (1991). 맹자의 교화언론과 왕도언론 사상. 『언론 사회 문화』(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창간호, 97~119.

- 이범수 (1993). 『四書三經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열 (1994). 마틴 부버에서 본 대화의 철학. 크리스찬 아카데미(편), 『대화의 철학』, 서울: 서광사.
- 이상철 (2000). 아리스토텔레스 레토릭(rhetoric)과 커뮤니케이션학. 『한국커뮤니케이션학』, 통권 8호, 164~184.
- 이준웅 (2001). 설득의 윤리적 문제: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349~386.
- 이현우 (1993).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펴 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I - 한국인과 커뮤니케이션』 (198-211쪽).
- 임태섭 (1993). 한국적 인간관계의 커뮤니케이션적 토대: 체면, 정, 그리고 눈치.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I - 한국인과 커뮤니케이션』 (31-56쪽).
- 조맹기 (2001). 『커뮤니케이션사상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요한 (1988).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서울: 경문사.
- 최정호 (1982). 한국언론문화의 전통과 현대: <말>과 <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최정호, 『언론문화와 대중문화』(35-54쪽). 서울: 민음사.
- 최정호 (1984). 한국인의 전통적인 언어관. 『한글』, 113~147.
- 최정호 (1989). 무사상(무사상)의 사회, 그 구조와 내력 - 현대 한국의 정신적 상황에 관하여. 『계간 사상』, 창간호, 8~55.
- 한국방송협회 (1997). 『한국방송70년사』. 한국방송협회.
- 한상갑 (역). (1976). 『맹자·대학』. 서울: 삼성출판사.
- 허경호·강태완 (1999). TV프로그램에 나타난 논증(argumentation)의 특성 분석 - KBS1TV <길종섭의 쟁점토론> 사례연구-. 『프로그램/텍스트』, 창간호, 177~208.
- 황경식 (1992). 대화와 관용, 그 인식적·윤리적 근거.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대화의 철학』. 서울: 서광사.
- Altschull, J.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양승목 역 (1993). 『현대언론사상사』. 서울: 나남.

- Aristotle (1960). *The rhetoric of Aristotle*. (Land Cooper, Tran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Milton, J. (1998). *Areopagitica*. 임상원 (역주). 『아레오파지티카』. 서울: 나남출판.
- Murphy, J. J. (1983).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rhetoric. In J. J. Murphy (Ed.),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p. 3~18). CA: Hermagoras Press.
- Myerson, G. (1994). *Rhetoric, reason and society*. Thousand Oaks, CA: Sage.
- Oliver, R. T. (1971). *Communication and culture in ancient India and China*.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 Plato (1972). *Phaedrus*. (R. Hackforth,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to (1994). *Gorgias* (Robin Waterfield, 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oulakos, Takis (1993). *Rethinking the history of rhetoric*. Boulder, CO: Westview Press.
- Reboul, O. (1989). *La rhétorique*. 박인철 역(1999). 『수사학』. 서울: 한길사.
- Störig, H. J. (1970).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임석진 역(1976). 『세계철학사』상권. 왜관: 분도출판사.

(최초투고 2002. 9. 2, 최종논문 제출 2002. 10. 10)

Rhetoric, Debate and Its Epistemological Basis

Yong-Bae K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Images, Dankook University

The previous study has assumed that dialogue and debate could not have been activated by the hierarchical Confucian norm and political authoritarianism in Korean society. Political democracy has developed in Korean society since 1987. But many observers have pointed out that the culture of debate still remained undevelope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key factor of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frequency of debate is the political factor such as authoritarianism, but the determining one of qualitative dimension such as debate competence derived from the epistemological tradition. In order to ascertain this hypothesis, this study explored the epistemological basis of Confucian thoughts in comparison with the classical Greek thoughts. In classical Greek society, philosophers considered that the purpose of debate is to find and to ascertain the truth. But Confucian scholars didn't look upon questioning the truth. Instead they considered practicing or doing of the truth worthwhile. Therefore, in a society which were much influenced by the Confucian thought, the culture of debate could not have been developed.

Keywords: debate, rhetoric, confucian thoughts, classical greek thoughts